

인구 늘리기 총력전 편 익산시 30만명 회복

주소 전입 정책·기업유치 등 인구 유입 사활

출산장려·귀농·귀촌 사업·일자리 발굴 추진

익산 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저출산과 수도권 이주 등으로 한 때 30만명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기업 유치와 출산 장려책 등으로 30만명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 30만187명을 기록, 한 달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익산시 인구는 1955년 33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30만6539명 ▲2014년 30만4117명 ▲2015년 30만2061명 ▲2016년 30만479명 등으로 매년 감소세가 멈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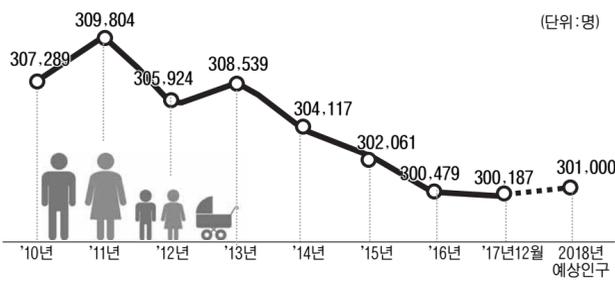
급기야 지난해의 경우 11월 말 인구가 29만9948명으로 떨어지는 등 30만명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30만명대가 붕괴되면 국비와 지방교부세 배분이 주는 데다, 행정조직 축소, 공무원 정원 감소 등이 불가피해진다. 게 익산시 설명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돼 정치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30만명 사수'를 위해 총력을 쏟았다. 출산장려, 찾아가는 주소 전입 민원, 학교·기업체·군부대·공공기관 직원의 전입 정책과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에 사활을 걸었다.

통장, 이장, 주민자치위원들은 매일 회의가 끝나자마자 주소전입 홍보물을 들고 길거리 홍보에 나섰다. 사회단체도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펼치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썼다.

■익산시 인구 변화 추이



결국 익산 인구는 30만명선을 회복하며 해를 넘겼다.

익산시는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제3·4일반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일자리 창출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새 일자리 2400여개가 만들어지고 직원과 가족들이 유입,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익산시 전망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출산장려 시책, 귀농·귀촌 사업 강화, 청년 정책사업 확대, 교육여건 개선 등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입주 활발

국내외 50개사 유치 완료

'비즈니스 상담소' 운영키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는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익산에 조성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식품기업 50개(국내 48, 국외 2) 및 연구소(2개소)를 유치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기업·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다. 지난해까지 전체 유치면적(115만8000㎡) 대비 32.5%(37만6000㎡)에 기업·연구소 유치가 확정됐다. 16개 기업이 착공에 들어갔고 9개 기업은 준공을 마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75개 기업을 유치, 클러스터 활성화에 공헌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는 타깃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한편 지원센터 내에 세무, 노무, 환경(폐수), 인허가 등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비즈니스 상담소'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의 국내외 식품시장 진출지원 및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취업인턴제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식품클러스터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입주기업 지원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군산 문화재 야행' 야간관광 콘텐츠 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빛의 거리·문화재 교육 연계

2년 방문객 총 25만명 돌파

군산시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관광콘텐츠 '군산 문화재 야행'(夜行)이 문화재청 야행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

군산 문화재 야행은 관광객 점유 비율 1위(44.7%), 문화재 부각효과 및 가치상승 1위(77점), 콘텐츠 개발 및 만족도 1위(76.8%), 지역 활성화 도모 1위(79점), 방문객 평균 지출액 2위(4만7천761원) 등의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빛의 거리 상설 조성, 옛 도심 경제 활성화, 거리 콘텐츠 구성, 문화재 교육 효과, 2년 방문객 총 25만명 돌파 등도 성공 요인으로 꼽혔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kwangju.co.kr



지난해 군산야행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빛의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

/*군산시 제공

"실습농장에서 체험하고 귀농·귀촌 준비하세요"

부안군 9200㎡ 활용, 주택·공동이용시설·실습농장 조성

농지구입·작물 기술교육 등 도시민 체험 프로그램 마련

귀농·귀촌을 앞둔 도시민들이 미리 머무르며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습농장'이 문을 열었다.

7일 부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일 상

서면 가오리 동림마을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임시거주시설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실습농장은 도시민이 귀농·귀촌지역을

선택하기 전 임시 머무르면서 농업·농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 정착 희망지에 적합한 주택, 농지구입, 재배 희망작물 기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시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안군은 공모를 거쳐 도비 15억 5100만원 확보, 군유지 9200㎡를 활용해 주택

10동, 공동이용시설 1동, 실습농장 3000㎡를 갖춘 농가실습농장을 조성했다.

주택은 가구당 38~50㎡ 단독주택으로 조성했고 부안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족들(2명 이상)은 입주할 수 있다.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뒤 3월초 입주도록 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적응을 돕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남안-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고창읍성 일대, 주민 쉼터로 변신

올해말까지 '자연마당' 조성

64억 투입 경관·생태 복원

고창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사적) 일대가 주민들의 생태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고창읍성(사적 제415호) 일대 생태계를 복원하는 '자연마당' 조성 사업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연마당 조성 사업은 고창읍성 일대(7만6559㎡)를 자연형 습지와 조류 관찰대, 동식물 서식공간, 생태농터, 자연학습장 등으로 꾸며 지역민들이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군은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국비 20억원 등 64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사업을 통해 425기의 분묘를 이



전하고 고창읍성 주변 생태와 경관을 복원, 지역 생태휴식 공간으로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이다.

군은 고창읍성 일대 생태복원이 완료되면 고창읍성(사적) 등 지역 관광 명소와 연계,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읍성이 지역 대표 관광지이자 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정읍시, 시내버스 안내 시스템 운영

시내 정류장 30곳 설치

정읍시가 새해 시내버스 안내정보 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시스템은 시내버스 위치정보를 교통정보센터가 파악해 도착 예정 시간을 정류장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기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국도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국비 1억5000만원을 포함,

5억원을 들여 이용객이 많은 시내 30개 정류장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인 '먼저 가세요~' 교통문화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먼저 가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관기관과 테스크포스를 꾸리고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골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두암동 2층 남향주택 대지 248㎡ 건평 154㎡ 사할도 적합 3억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향층을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북향주택 76㎡ 생활면적 1억6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담양군 창평 의항리 9544㎡ 공장등 적합 평당 45만원
- 신안군 입해를 도촌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6600만원
- 순창 북흥면 전 3천여평 포함 산 75780㎡ 4억2천
- 함평읍 물대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건물 247㎡ 1층 가게, 2층 투룸, 3층 안집, 은행 1억5천 생활면적 5억7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8천
-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 564㎡ 건평 596㎡ 보증금 5천에 월6000선 13억2천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영암 월출산 일 판선 땅 1578㎡ 경관좋은 4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7천
- 담보용 남구 송하동산 22556㎡ 감정 2억4700 매도 1억2천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천
- 장성 백암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중을 2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127 건평 297 감정 10억7천 은행 6억 교환가능 7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헌전, 농성초교옆문앞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 - 4200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팟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14억

문의 H.010-3605-5000

토지구합

1.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도곡온천 가는길 좌 우측 도로변 토지
2. 화순읍 신기리 만연사 가는길 또는 화순읍 유천리 전대병원 가는길 좌 우측 도로변 토지 약 2,000㎡ 내외

H. 010-3162-4989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이장현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튀김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98/9 Fax. 02-2029-6404
광주 : 광주광역시 광안구 학남산단4번로 45(창의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창사66주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너지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